

구약논단

제 16권 2호(통권 36집) 2010년 6월 30일

차 준희(한세대) 전도서 5장의 신학적 읽기: 주석과 메시지 116

이 글은 신학교의 교단과 교회의 강단 사이의 괴리 문제의 실마리를 성서에 대한 신학적 주석에서 찾으려고 시도한다. 신학적 주석은 본문의 형성과정보다는 최종형태에 주목하고, 당시(최종편집자)의 의미를 규명하고 더불어 오늘의 메시지를 도출하려는 해석학적 시도이다. 이 글은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과 단락들로 채워져 있는 전도서 5장을 주석하고, 설교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Cha, Jun-Hee The Theological Reading of Ecclesiastes 5:

Exegesis and Message 116

전도서 5장의 신학적 읽기: 주석과 메시지¹⁾

차 준희 | 한세대

1. 들어가는 말

폰 라트(G. von Rad: 1901-1971)는 “성서 주석과 설교”라는 연구발표회에서 첫째, 성서의 본문은 “설교로 선포되어야 합니다”(müssen). 둘째, 성서의 본문은 “설교로 선포될 수 있습니다”(können)라고 역설한 바 있다.²⁾ 이 말은 ‘성서 주석’(학교의 교단)과 ‘설교’(설교의 강단) 사이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난점과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신학교의 교단과 설교의 강단의 괴리현상은 우리 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분명한 것은 양쪽 진영의 괴리는 결국 양쪽 모두의 파멸을 가져다 줄 것이다. 교단은 강단에서 용이하게 활용할 수도 없는 어려운 성서 읽기만을 학문의 이름으로 고집하고, 강단은 교단의 진리 공급을 무시하고 교회(목회)의 특성을 들먹이며 왜곡된 성서 읽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21세기 성서학은 이러한 괴리의 고리를 끊어주는 작업을 성서학의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 현장 목회자들이 교

1) 이 글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돕는 월간지 “월간 프리칭”에 투고(2010년 5월호)한 내용이 바탕이 되어, 전면 개정과 보강 그리고 각주 제시를 통한 심화과정을 통하여 완성된 것임을 밝혀준다.

2) 폰 라트, “성서주석과 설교,” (문 희석 역) 「교회와 신학」 8 (1977), 98쪽.

회의 신자를 섬긴다면, 신학자(특히 성서학자)는 목회자의 설교를 섬겨야 한다. 목회자와 신학자는 한 몸이 되어 교회와 신자와 세상을 섬겨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요청에 답하는 글이 되려고 노력한다. 이른바 아카데미즘(전문성)과 저널리즘(대중성) 사이에 가교를 놓는 중간의 길을 걷는다. 이러한 시도의 한 본문으로 전 5장을 선택한다. 전도서 가운데 특히 전 5장은 쉽게 이해되지 않은 난제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는 어려운 단락들로 채워있다.³⁾ 이 때문에 전 5장에 대한 이해는 학자마다 심각할 정도로 제각각이다.

이 글은 전 5장의 의미 파악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이를 위해 본문을 최종 본문에 주목하며, 그 의미와 메시지 도출에 주력하고자 한다. 즉 본문을 신학적으로 주석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결과가 설교의 현장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설교적 메시지를 결론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신학교와 교회가, 교단과 강단이 서로 같은 길을 걷는 도우(道友)임이 드러났으면 한다.

전 5장은 다음과 같은 다섯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종교 현실의 비판(전 5: 1-7), 둘째, 사회 현실의 비판(전 5: 8-9), 셋째, 부(富)의 아이러니(전 5: 10-12), 넷째, 부(富)의 상실(전 5: 13-17), 다섯째, 하나님의 선물과 응답으로서의 즐거움(전 5: 18-20)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3) 전도서 5장에 관한 최근의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D. A. Garrett, "Qoheleth on the Use and Abuse of Political Power," *Trinity Journal* 8 (1987), 159-177쪽; D. C. Fredericks, "Chiasm and Parallel Structure in Qoheleth 5:9-6:9," *JBL* 108 (1989), 17-35쪽; G. S. Ogden, "Translation Problems in Ecclesiastes 5.13-17," *BiTr* 39 (1989), 423-428쪽; J. L. Kugel, "Qohelet and Money," *CBQ* 51 (1989), 32-49쪽; N. Lohfink, "Kohélet und die Banken: Zur Übersetzung von Kohélet 5,12-16," *VT* 39 (1989), 488-495쪽; N. Lohfink, "Qoheleth 5:17-19: Revelation by Joy," *CBQ* 52 (1990), 625-635쪽; H. Tita, "Ist die thematische Einheit Koh 4,17-5,6 eine Anspielung auf die Salomoerzählung? Aporien der religionskritischen Interpretation," *BN* 85 (1996), 87-102쪽; T. Krüger, "Das Gute und die Güter: Erwägungen zu Bedeutung von טוב and טובה im Qoheletbuch," *ThZ* 53 (1997), 53-63쪽; L. Rüdiger, "Denn es ist kein Mensch so gerecht auf Erden, daß er nur Gutes tue ...': Recht und Gerechtigkeit aus der Sicht des Predigers Salomo," *ZThK* 94 (1997), 263-287쪽; T. Hieke, "Wie hast Du's mit der Religion?: Sprechhandlungen und Wirkintentionen in Kohélet 4,17-5,6," A. Schoorsted., *Qohelet in the Context of Wisdom*, (Leuven-Louvain: Leuven University Press, 1998), 319-338 쪽; A. Buhlman, "The Difficulty of Thinking in Greek and Speaking in Hebrew(Qoheleth 3.18: 4.13-16; 5.8)," *JSOT* 90 (2000), 101-108쪽 등.

장 절	
5: 1-7	종교현실의 비판
1-3	희생제사와 기도
4-7	서원과 속죄제
5: 8-9	사회현실의 비판
5: 10-12	부(富)의 아이러니
5: 13-17	부(富)의 상실
5: 18-20	하나님의 선물과 응답으로서의 즐거움

2. 본문 주석

1) 종교 현실의 비판(전 5: 1-7)

전 5장 1-7절은 종교-의식적인 현실을 다루고 있다. 전 5장 1-3절은 희생제사와 기도에 대하여 다루고, 전 5장 4-7절은 서원과 속죄 제사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전 5장 2절과 7절의 꿈-모티브는 전(前) 단락(전 5: 1-3)과 후(後) 단락(전 5: 4-7)을 이어준다. 또한 전 5장 7b절은 전 5장 4-7절 단락의 마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전 5장 1-7절 단락 전체의 종결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1) 희생 제사와 기도(전 5: 1-3)

전 5장 1절은 제사에 대하여 진술한다. 전 5장 1a절의 ‘삼가다’(사마르)는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 사용된다. 특히 언약(창 17: 9-10), 정의(사 56: 1), 인애와 정의(호 12: 6),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명과 교훈(신 4: 2) 등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때 사용된다. 또한 ‘발’로 번역된 ‘레겔’은 ‘발’과 ‘걸음걸이’뿐만 아니라, 특히 지혜문학에서는 ‘처신’이나 ‘윤리적 태도’를 나타낸다(잠 19: 1-2). 따라서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라는 구절은 잘못된 의도로 성전에 다가가는 것을 경고한다. 이어지는 구절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말씀을 듣는 것과 ‘제물을 드리는 것이 대조된다. 이 구절은 삼상 15장 22절을 생각나게 한다: “야웨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청종(듣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에 더 합당한 태도이다.⁴⁾ 그러나 우매한 자들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지 못한다(전 5: 1b). 그들은 종교적 실재에서 어리석고 미개한 형태를 보이는 대표자들로 보인다.⁵⁾

전 5장 2절은 기도에 대하여 다룬다. 전도자는 여기서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종교적 현실을 비판한다. 여기서는 말이 많고(“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감정적으로 과열된 상태(“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의 기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말을 많이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⁶⁾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기도는 신중함과 침착함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한다. 전도자는 그 이유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전 5: 2b)는 사실을 언급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그분을 만날 수 없다”는 전도자의 하나님 이해는 그 밖의 구약성서에 나타난 신 이해와는 차이를 보인다. 다른 구약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역동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시고, 그분의 선택 행위에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묘사된다.⁷⁾ 반면에 전도자는 여기서 지나치게 신인동형동성론(神人同型同性論)적이고 인격적으로 진술된 하나님 이해를 배격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말을 많이 함으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사업 파트너가 아니다.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은 인간이 기도를 통하여, 즉 말 많은 기도를 통하여 감히 조정할 수 없는 “완전 타자”이다.⁸⁾ 여기서 강조 점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러나 전도자가 말하는 이 하나님을 멀리 있는 “독재자”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판단으로 보인다.⁹⁾ 이 하나님은 다만 인간이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다(전 5: 6).¹⁰⁾ 따라서 하나님께는 말을 거는 것보다 듣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라쉬밤(Rashbam)이 말한 바와 같이 사람이 기도할 때 말하는 것을 주의하고, 일단은 말을 아껴

4) 제사보다 순종이 더 앞선다는 것은 그 밖의 성서본문에서 자주 명시되고 있다(잠 21: 3 사 1: 10-17; 호 6: 6; 암 5: 21-24; 미 6: 6-8).

5) L. Schwienhorst-Schönberger, *Kohélet* (Herders Theologischer Kommentar zum Alten Testament), (Freiburg: Verlag Herder, 2004), 313쪽.

6) L. Schwienhorst-Schönberger, *Kohélet*, 314쪽.

7) D. Michel, *Untersuchungen zur Eigenart des Buches Qohelet. Mit einem Anhang von Reinhard G. Lehmann: Bibliographie zu Qohelet* (BZAW 183), (Berlin: de Gruyter, 1989), 288쪽.

8) N. Lohfink, *Kohélet* (Die Neue Echter Bibel), (Würzburg: Echter Verlag, 1980), 40쪽.

9)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다음과 같다; A. Lauha, *Kohélet*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99쪽.

10) 머피, 「전도서(WBC 성경주석)」 김 귀택(역), (서울: 솔로몬, 2008), 197쪽.

실수를 줄이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¹¹⁾ 말의 기도보다 듣는 기도, 즉 “침묵의 기도”가 더 중요하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전 5: 2b).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이 침묵은 단순히 순간적인 정지나 소음의 부재가 아니라, 침묵 그 자체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소리가 완전히 중지된 것을 말한다.¹²⁾ 성소에서 제사가 거행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인간의 순종은 침묵으로 확인된다. 침묵의 성소에서는 당연히 침묵의 기도만이 합당한 태도이다.¹³⁾

전 5장 3절은 전 5장 1-3절의 소 단락을 마감하는 구절이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여기서 ‘걱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인얀’은 오직 전도서에서만 나오는 단어로서 ‘수고/일/사업/사건’이라는 의미이다.¹⁴⁾ 이 단어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여기에서는 ‘수고/일’은 제물을 드리거나(1절), 함부로 말하며 급한 마음으로(전 5: 2a), 그리고 말을 많이 함으로(전 5: 2b)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려고 시도하는 것들을 가리킨다. 이러한 일에 몰두하면 결국 망상(꿈)에 빠지게 된다. 여기서 꿈(하룻)은 망상으로 이해된다.¹⁵⁾ 전 5장 3b절의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다”는 구절은 전 5장 2b절의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는 진술을 일반화시키고 있다. 이 단락(전 5: 1-3)은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실행을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정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서원과 속죄제(전 5: 4-7)

이 단락(전 5: 1-7)의 두 번째 소 단락(전 5: 4-7)은 서원과 속죄 제사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이 단락도 앞선 단락(전 5: 1-3)이 제사와 기도의 전면적인 폐지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서원과 속죄 제사의 완전한 거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전도자는 4절에서 하나님께 서원 한 것을 지체하

11) M. V. Fox, *Ecclesiastes* (The JPS Bible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04), 33쪽.

12) R. Otto, *The Idea of the Hol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70쪽.

13) I. Knohl은 성소에서 침묵을 요구하는 것은 ‘침묵의 성소’로 언급하고 있는 고대의 제의 정신으로부터 유래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I. Knohl, “Between Voice and Silence: The Relationship between Prayer and Temple Cult,” *JBL* 115 (1996), 17-30쪽.

14)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 이 정의(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7), 608쪽.

15) L. Schwienhorst-Schönberger, *Kohelet*, 314쪽.

지 말고 실행하도록 권고한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 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전 5: 4a). 하나님은 서원을 실행하지 않는 자(우매자들)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전한다(전 5: 4b). 이는 신명기 율법의 한 내용과 유사하다: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아웨게 내가 서원 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신 22: 23).

전도자는 전 5장 5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경솔하게 서원하는 것을 경고한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잠언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고를 만날 수 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닳아 되느니라”(잠 20: 25; 참조. 집회서 18: 22-23).

전 5장 6a절의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 하게 하지 말라”는 구절은 입의 죄를 경고하고 있다. 이전 구절들에서, 즉 전 5장 1절은 성전에서의 듣기를 권고하였고, 전 5장 2절은 기도할 때 너무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경고하였고, 전 5장 4-5절은 경솔하게 서원 하는 것을 경고하였다. 이 구절들에서 언급된 행동들은 모두 입으로 지은 죄로 이해된다. 전도자는 전 5장 6절에서 입으로 지은 죄를 또 하나 언급한다. 전 5장 6a절의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 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는 경고에서 ‘사자’(말아크)는 제사장을 의미한다(말 2: 7). 이 구절은 ‘실수’(쉐가가) 제사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은 중형을 받아야 했고, 공동체로부터 축출 당해야 했다(민 15: 30-31). 그러나 ‘실수’(쉐가가)로 죄를 지은 사람은 이에 상응하는 속죄 제사를 통하여 죄를 벗을 수 있었다(레 4: 2-4; 민 15: 22-29). 그런데 실수 제사의 실체는 죄를 가볍게 다루는 위험이 항상 은닉되어있다.¹⁶⁾ 전 5장 6a절은 이러한 경우를 경고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구약의 또 다른 본문에서도 발견된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잠 28: 13; 참조. 시 32: 3-5; 51편). 전 5장 6b절은 ‘반어적인 어조’로 실수 제사를 통하여 습관적으로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고 있다: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¹⁷⁾

16) L. Schwienhorst-Schönberger, *Kohelet*, 316쪽.

전 5장 7a절의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라는 진술은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는 전 5장 2절을 다시 끄집어내고, 전 5장 7b절은 전 5장 1-7절 단락 전체를 종결한다. 전 5장 7a절은 전 5장 2절의 진술과 유사하다. 여기서도 꿈은 망상이요, 감추어진 의식 상태로 보인다. 꿈이란 단지 검증되지 않은 무의식 세계의 상상일 뿐이다.¹⁸⁾ 이 단락에서 꿈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표상이고, 이러한 표상에 따른 행동 방식을 가리킨다. 이런 식의 꿈이 많아지면 말도 많아진다. 따라서 전 5장 7a절은 지금까지 논의된 종교 논쟁의 부정적인 면을 집약하고 있다.¹⁹⁾

전 5장 7b절은 아주 짙막한 형태로 대안을 제시한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전도자의 종교현실 비판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촉구하는데 이르게 된다.²⁰⁾ 전도자는 전통적으로 주어진 종교 활동의 형태를 비판한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신앙인들이 제사를 통하여, 그리고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고, 서원을 실행하지 않거나 실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태들과 구분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누군가에 의해서도 그리고 그 무엇에 의해서도 조정될 수 없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2) 사회 현실의 비판(전 5: 8-9)

전 5장 8-9절은 불가해(不可解)한 구절로 유명하다.²¹⁾ 우선 각 진술들의 출처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5장 8a절은 ‘전도자의 관찰’이고, 전 5장 8b-9절은 ‘체제 옹호자의 응답’으로 보인다.²²⁾ 적어도 전 5장 9절은 지

17) A. Vonach, *Nähere Dich um zu hören: Gottesvorstellungen und Glaubensvermittlung im Koheletbuch* (BBB 125), (Berlin/Bodenheim, 1999), 51쪽.

18) 브라운, 「전도서(현대성서주석)」 채 은하(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6), 112쪽.

19) L. Schwienhorst-Schönberger, *Kohelet*, 316-317쪽.

20) N. Lohfink, “Warum ist der Tor unfähig, böse zu handeln?(Koh 4,17),” *ZDMG.S 5* (1983), 113-120, 특히 116-117쪽.

21) R. Gordis는 이 구절을 가리켜 “극복할 수 없는 수수께끼”(insuperable crux)라고 칭한 바 있다. 참조 R. Gordis, *Koheleth-The Man and his World. A Study of Ecclesiastes*, (New York: Schocken, 1951), ³1968, 250쪽; C. -L. Seow는 “이 구절은 아마도 절망적으로 변조되어 버렸을 것이고, 마소라(MT)본문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며 안타까워하기도 한다. 참조 C. -L. Seow, *Ecclesiaste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18C), (New York: Doubleday, 1997), 204쪽.

금까지의 전도자의 진술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전 5장 9절은 당시 통치 체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슬로건으로 보인다.²³⁾ 그 이유로 두 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 첫째, 전 5장 9절은 땅에 '소산물'(이 트론)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 반하여, 지금까지 전도자는 '이트론'(유익)의 존재를 줄곧 부인해왔다(전 1: 3: 3: 9 등). 둘째, 전 5장 9절에서 '이트론'이라는 단어는 땅과 연결되어 있는 반면에, 전도자는 다른 본문에서 이 단어를 오직 사람과 그의 행동과 관련하여서만 사용한다(전 1: 3: 2: 11, 13: 3: 9, 19: 5: 15: 6: 8, 11: 7: 11, 16: 10: 10-11).²⁴⁾ 따라서 9절은 전도자의 말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체제 옹호자의 진술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²⁵⁾ 전 5장 8b절은 내용상 전 5장 8a절보다는 전 5장 9절과 더 가까워 보인다. 그렇다면 전 5장 8a절은 전도자의 진술이고, 전 5장 8b-9절은 체제 옹호자의 진술을 인용한 구절로 보아야 한다.²⁶⁾

전 5장 8a절은 지방에서 발생하고 있는 빈민 학대와 정의(미쉬파트)와 공의(체테크)가 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한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구절은 "놀라지 말라" 혹은 "경악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는 이러한 부패가 이미 일상적인 현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자조적으로 드러낸다. 이런 일이 새삼스러워할 것도 없다는 것이다.²⁷⁾

전 5장 8b절의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는 진술은 당시의 통치 체제를 옹호하는 자들의 주장이다. 그들은 당시의 사회적 부패들이 상호 감시의 체제를 통하여 이미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도자는 당시의 체제를 지지하는 자들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적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서로 다르다. 불이익을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틀을 깨는 개혁이 절실하고, 이익을 누리는

22) L. Schwienhorst-Schönberger, *Kohelet*, 322쪽.

23) A. Bonora, *Il Libro di Qoèlet*, Guide Spirituali all'Antico Testamento, (Roma: Città Nuova, 1992), 96쪽.

24) F. J. Backhaus, "Denn Zeit und Zufall trifft sie alle". *Studien zur Komposition und zum Gottesbild im Buch Qohelet* (BBB 83), (Frankfurt am Main: Anton Hain, 1993), 186쪽 각주 63.

25) T. Krüger, *Kohelet(Prediger)*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Sonderband),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0), 219쪽.

26) 특히 전도서 5: 8에 관한 최근의 연구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A. Buhlman, "The Difficulty of Thinking in Greek and Speaking in Hebrew(Qoheleth 3.18; 4.13-16; 5.8)," *JSOT* 90 (2000), 101-108쪽.

27) 브라운, 「전도서」 113쪽.

자의 입장에서는 현 상태의 유지를 고수하고 싶은 것이다. 한쪽은 “못 살겠
다 같아보자!” 다른 한 쪽에서는 “이만하면 살만하다!”라는 것이다.

전 5장 8절의 ‘지방’은 점점 가난해져 가는 데 반하여, 전 5장 9절의 왕에
게 속한 ‘도시’(땅)에서는 ‘소산물’(이트론, 유익)이 넘쳐난다. 당시의 체제는
특히 지배층들에게는 ‘이트론’(유익)을 가져다준다: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
니라”(전 5: 9b). 그러나 이와는 달리 토착민의 대부분은 빈곤층에서 벗어
나지 못했다.²⁸⁾ 전도자는 전 5장 8-9절에서 특히 유다 지방에서 드러난 사
회적 요구와 현실의 모순을 지적한다. 여기에는 반어적인 사회 현실의 비판
이 담겨있다. 유익/소산(이트론)이란 왕에게 속한 땅에서만 주어지고, 가난
한 자와는 상관없다는 것이다.²⁹⁾ 그런데 통치자들에게는 이러한 사회적
전혀 모순이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애써 외면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3) 부의 아이러니(전 5: 10-12)

전 5장 10-12절은 ‘부의 양면성’ 내지는 ‘위험성’을 다루고 있다.³⁰⁾ 전 5
장 10a절의 “은(케세프)을 사랑하는(아하브)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아하브)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라는 구절은
물질(케세프)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부의 지나친 축적을 문제
삼는 것도 아니며,³¹⁾ 물질을 사랑하는(아하브), 즉 물질을 추구하는(아하
브)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할 정도로 바라다면 진정한 안식에
다다를 수는 없다. 돈 사랑을 통해서만 만족의 궁극적 목적에는 결국 도달하
지 못한다는 것이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
문이다.³²⁾ 따라서 이 구절은 부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부를 추구하게 되면 쉽게 부의 중독에 이르게 됨을 가리킨다. 전도자는
돈과 부를 사랑함으로 만족하려는 온갖 노력은 부질없는 일이라고 단언한다:
“이것도 헛되도다”(전 5: 10b).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 재산이 헛되다는

28) M. Rostovtzeff, *Gesellschafts- und Wirtschaftsgeschichte der hellenistischen Welt*, Band 1,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55), 323쪽.

29) L. Schwienhorst-Schönberger, *Kohelet*, 324쪽.

30) 전도자와 돈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J. L. Kugel, “Qohelet and Money”, *CBQ* 51
(1989), 32-49쪽.

31) 이 단락이 ‘부의 지나친 축적’을 문제로 삼고 있다는 브라운의 견해는 약간 지나친 해석으로 보
인다. 브라운, 「전도서」 116쪽.

32) 머피, 「전도서」 198쪽.

것은 돈이 그 소유자가 기대하는 것을 결코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배운다.³³⁾

전 5장 11a절의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라는 구절은 잠 14장 20절과 잠 19장 4, 6절을 상기시킨다. 대체적으로 부유한 자에게는 친구들이 많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잠 14: 20). 잠 19장 4절도 이와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런데 잠 19장 6절은 이러한 현상의 양면성을 드러낸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부유하면 친구가 많이 몰리고 그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소비된다. 전도자는 이러한 양면성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반어적으로 끄집어낸다(전 5: 11a). 전 5장 11b절의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는 수사학적 질문은 이와 같은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소유주들의 재산은 점점 더 줄어든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의 재산을 먹어치우는 과정을 그저 구경하는 것밖에 없다.

전 5장 12절은 삶의 아이러니한 경우 하나를 다루고 있다. 이 구절은 노동자의 달콤한 잠과 부자의 불면증을 대조시킨다. 노동자들은 적어도 무언가를 먹고, 단잠을 잔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전 5: 12a). 이에 반해 부자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전 5: 12b). 눈이 그토록 애타게 지켜본 재물(전 5: 11b)이 이제는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³⁴⁾ 참으로 아이러니라 아니할 수 없다. 부자의 불면은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과식’으로 인한 것이다. ‘부유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바’의 문자적인 의미는 ‘포식/배부름/포만감’이다. 부자는 과식으로 인하여 편안한 잠을 이루지 못한다: “점잖은 사람은 너무 많이 먹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잘 때에 숨이 가쁘지 않다. 절제 있게 먹으면 잠도 잘 오고 상쾌한 기분으로 일찍 일어나게 된다. 포식한 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불면과 구토와 복통뿐이다”(집회서 31: 19-20). 수메르 잠언에도 “배불리 먹은 자는 잠을 잘 수 없

33) 브라운, 「전도서」 116쪽

34) 머피, 「전도서」 199쪽.

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또한 부의 축척이 가져다 주는 해악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다.³⁵⁾ 둘째는 ‘걱정’으로 인한 것이다. 부자는 자신의 부유함과 결부된 걱정으로 단잠을 자지 못한다. 재산의 증식이나 재산의 상실에 대한 우려로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재산을 지키기에 밤을 새우면 지치고 재산 걱정을 하다 보면 잠을 못 이룬다”(집회서 31: 1). 재산의 갑작스러운 상실에 관해서는 다음 단락에서 다룬다(전 5: 12-17).

4) 부의 상실(전 5: 13-17)

전 5장 13-17절은 ‘부의 상실’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³⁶⁾ 전 5장 13절은 한 경우를 묘사함으로 시작한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큰 폐단’을 본다. 이는 전도자 당시에 실제로 발생했던 돌발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여기서 ‘해가 되도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르리아토’로, 문자적으로는 ‘그의 불행/재난/사고를 위하여’라는 뜻이다. 따라서 전 5장 13b절은 두 가지 의미로 풀이된다.³⁷⁾ 첫째, 소유자가 불행한 일이 닥칠 것을 대비하여(“해[害]를 위하여”) 재산을 저축하고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둘째, 이러한 예방 조치의 시도로 소유자를 결국 불행으로 빠뜨리는(“해[害]가 되도록/“해가 될 때까지”) 경우를 말한다. 자신의 소유를 해가 될 때까지 가지고 있기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모두 상실하게 된다. 부자는 결국 그것을 지키는 “경비견 신세”로 전락된다.³⁸⁾ 그것도 잘 지켜내지도 못해 마침내 해고당할 경비견이다.

그 재물은 불행한 일을 당할 때(“재난을 당할 때”) 사라진다(전 5: 14a). 이 일이 어떤 불행한 일인지는 현재의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는다. 여기서 불행한 일로 예를 들어 ‘잘못된 투자’나 ‘은행 파산’의 경우를 추정할 수도 있

35) E. I. Gordon, *Sumerian Proverbs*, 1959, 271쪽, 김 영진, 「삶의 의미를 찾아서」(서울: 이레서원, 2008), 109쪽 재인용.

36) 전도서 5: 13-17에 대한 탁월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N. Lohfink, “Kohélet und die Banken: Zur Übersetzung von Kohélet 5,12-16,” *VT* 39 (1989), 488-495쪽.

37) L. Schwienhorst-Schönberger, *Kohélet*, 334쪽.

38) 민 영진, 「전도서/아가(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기념 성서주석)」(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134쪽.

다.³⁹⁾ 전도자의 시대에서도 갑작스러운 경제적 파탄이 드물지 않았다고 한다.⁴⁰⁾ 아마도 본디 불행을 대비하여 모아두었던 재물이 한순간에 소실됨으로 지금은 그 재물 때문에 스스로 불행하게 되었을 것이다. 사업 한 번 잘못하면 전 재산을 잃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이때 아들이 태어났다: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 것도 없느니라”(전 5: 14b). 이 때를(도) 대비하여 준비한 재물이 정작 그때가 이르자 다 날라 간 것이다. ‘쌓아놓은 부’는 곧 ‘잃어버린 부’와 같다. 여기서 ‘그 손’은 ‘아들의 손’⁴¹⁾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의 손’⁴²⁾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 단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소유자의 재물 상실’이기 때문이다.

전 5장 15절의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 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자기 못하리니”라는 구절은 적지 않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죽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⁴³⁾ 전 5장 17절은 가난하게 된 이 소유자의 삶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 진술에 따르면, 그의 삶은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전 5장 15절은 그가 태어났던 때와 같이 벌거벗은 상태, 즉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 새롭게 시작함을 묘사한 것이다.⁴⁴⁾ 따라서 이 구절은 부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참조 눅 12: 16-21)이 아니라, 전 재산의 상실을 묘사한 것이다. 그는 갑자기 알거지가 되었고, 인생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만 한다. 그는 지금까지 수고하고 얻은 재산 가운데 챙길 것이 아무 것도 없게 되었다(전 5: 15b). 그의 모든 수고란 알고 보면 바람 잡는 것에 불과

39) N. Lohfink는 이렇게 주장한다: N. Lohfink, “Kohélet und die Banken: Zur Übersetzung von Kohélet 5,12-16,” *VT* 39 (1989), 488-495, 특히 492-493쪽.

40) L. Schwienhorst-Schönberger, *Kohélet*, 334쪽.

41) 이렇게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다음과 같다: K. Galling, *Der Prediger: Die Fünf Megilloth* (HAT 1/18), (Tübingen: Mohr Siebeck, ²1969), 102쪽; A. Lauha, *Kohélet*, 111쪽 등.

42) 이러한 입장을 가진 대표적 학자는 다음과 같다: N. Lohfink, “Kohélet und die Banken: Zur Übersetzung von Kohélet 5,12-16,” *VT* 39 (1989), 488-489쪽; D. Michel, *Untersuchungen zur Eigenart des Buches Kohélet*, 188-189쪽 등.

43) 이러한 입장을 가진 대표적인 학자는 다음과 같다: A. Lauha, *Kohélet*, 111쪽; 링그렌/쥘멀리, 「잠언/전도서(국제성서주석)」 박 영욱(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304쪽; 이 성훈외, 「전도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두란노 HOW주석,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163쪽 등.

44) N. Lohfink, “Kohélet und die Banken: Zur Übersetzung von Kohélet 5,12-16,” *VT* 39 (1989), 493쪽.

했다: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전 5: 16). 재산의 광채는 한 순간 사라지고, 줄지에 가난하게 된 자는 이제 어둠 속에서 간신히 연명할 뿐이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전 5: 17a). 그는 육체적이고 심리적으로 근심과 질병과 분노로 가득 찬 상태에 놓여 있다: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전 5: 17b). 그리고 그는 고질적인 만성질병에 시달린다(딤후전 6: 9).⁴⁵⁾

5) 하나님의 선물과 응답으로서의 즐거움(전 5: 18-20)

전 5장 18-20절은 하나님의 선물과 응답으로서의 즐거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전도자는 전 5장 18절에서 진정한 낙(행복)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 구절은 전 2장 24절과 전 3장 13절과 매우 유사하다. 이 세 구절에서는 ‘먹고’, ‘마시고’, ‘낙을 보는 것’이라는 개념이 약간 변형되어 표현된다. 여기서 “선하고 아름다움”(토브 아쉐르 아페)은 ‘최고의 선’(das höchste Gut), ‘진정한 행복’(das wahre Glück)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⁴⁶⁾

“하나님께서 그(사람)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서 ‘일평생’은 히브리어로 ‘미스파르 예메이-하야브’인데, 이는 ‘그의 기한부의 삶의 나날’(the few days of his life)이란 뜻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한된 생명’(삶), 즉 죽음의 한계 안에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인간의 수명이 정해져 있고 짧기에, 인생의 즐거움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한층 강화시켜야 한다.⁴⁷⁾ 제한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은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서 낙을 보는 것이다(전 5: 18a). 여기서 인간의 일이나 수고(“수고하면서”)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자가 실제로 격려하는 덕목이기도 하다(전 9: 10). 따라서 인생의 온전한 기쁨은 억압적인 수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과 쉼을 조화롭게 조절할 때 얻어진다.⁴⁸⁾ 전 5장 18b절의 “그것이 그의

45) 민 영진, 「전도서/아가」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기념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135쪽.

46) L. Schwienhorst-Schönberger, *Kohélet*, 338쪽.

47) 브라운, 「전도서」 119쪽.

몹이로다”에서 ‘그것’은 전 5장 18a절에서 언급된 ‘누림의 과정’을 가리킨다. 여기서 전도자의 행복론이 드러난다. 낙(행복)이란 ‘재산의 소유’에 있지 않고, ‘재산의 누림’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지 않는 재산이란 사실 가치가 없다. 그런 재산은 짐에 불과하다.

전 5장 19절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재물과 부유함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함을 그에게 주사 능히 우리에게 하시며 제 몹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재물과 부유함만을 가지고는 아직 행복을 누릴 수는 없다.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누릴 수 있을 때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제 몹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에서 ‘제 몹’이란 ‘재산의 취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의 체험’을 말한다. 여기서 전도자가 가르치는 행복은 ‘소유 양식’(Modus des Habens)이 아니라, ‘체험 양식’(Modus des Erlebens)이다.⁴⁹⁾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19b절). 이 구절은 이러한 낙(행복)의 체험이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다시 한 번 언급한다: “하나님이 능히 우리에게 하시며(살라트).” 여기서 하나님은 ‘재산의 수여자’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재산의 누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으로 묘사된다.

전 5장 19절은 행복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상(전 2: 24; 3: 13)을 수용하고, 전 5장 20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전 5장 19절의 ‘선물’(마타트)이라는 단어는 전도서에서는 전 3장 13절과 전 5장 19절에서만 사용된다. 전 5장 20절은 어떻게 기쁨(즐거움)이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설명한다.⁵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3장 13절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쁨(즐거움)은 ‘하나님의 응답(아나)’에서 왔다는 것이다(전 5: 20b). 히브리어 ‘아나’는 ‘계시하다’라는 의미의 전문 용어이다(창 41: 16; 삼상 9: 17; 욥 33: 13-18).⁵¹⁾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킨다. “마음의 기쁨(즐거움)은 하나님의 계시와 같은 어떤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가 어느 한 순간 기쁨을

48) 브라운, 「전도서」 110-120쪽.

49) L. Schwienhorst-Schönberger, *Kohelet*, 341쪽.

50) N. Lohfink, “Qoheleth 5:17-19: Revelation by Joy,” *CBQ* 52 (1990), 625-635, 특히 632쪽.

51) L. Schwienhorst-Schönberger, *Kohelet*, 342쪽.

체험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것과 접촉하게 된다.⁵²⁾ 따라서 기쁨(즐거움)이란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하다. 여기서 하나님은 인간의 즐거움 체험에서 신비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으로 간주된다.

3. 신학적 메시지

1) 그 입을 닫으라!(전 5: 1-7)

전 5장 1-7절은 종교적 현실을 비판적인 측면에서 묘사한다. 종교적 실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입장, 즉 하나님 경외에 의하여 철저하게 검증되고 교정되어야 한다. 모든 종교적 행위보다 앞서는 것은 듣는 것이다(전 5: 1). 하나님께 제대로 응답하려면 우선 멈추고, 침묵하며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패스워드는 침묵이다. 침묵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이다(침묵의 성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침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진정으로 들어야 할 참 소리는 침묵을 통하여 들려온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기도의 양'이 아니라 '기도의 질'이다. 많은 말이 아니라, 순결한 마음과 통회의 눈물로 하는 기도가 응답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시 51: 17). 기도는 가급적이면 짧고 순수해야 한다.

2) 은폐의 메커니즘(전 5: 8-9)

전 4장 13-16절과 전 5장 8-9절의 왕에 대한 비판적인 진술을 담고 있는 두 가지 단락의 사이에 진정한 예배에 대하여 언급하는 단락인 5장 1-7절이 위치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러한 배열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전도자는 왕권 통치를 비판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중심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태도에 관한 진술을 던지시 집어넣고 있다. 성서의 통치 비판과 마찬가지로 전도자의 통치 비판의 핵심도 결국 하나님 인식에 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전 5: 7).

하나님의 통치를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통치를 상대화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의 통치는 자기 이상화의 위협에 너무 쉽게 빠진다. 전 5장 8-9절은

52) N. Lohfink, "Qoheleth 5:17-19: Revelation by Joy," *CBQ* 52 (1990), 634쪽.

약자를 돌보는, 즉 정의와 공의를 책임지는 왕의 통치를 요구한다: “하나님 이여 주의 판단력(미쉬파트)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체다카)를 왕의 아 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체테크)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 를 정의(미쉬파트)로 재판하리니”(시 72: 1-2). 전도자는 사회적 현실이 이 러한 하나님의 요구와 상응하지 않음을 통찰력 있게 지적하고, 통치자들의 눈을 가리는 ‘은폐의 메커니즘’을 반어적으로 비판하고 있다.⁵³⁾ 통치자들은 보통 주변의 이부하는 자들의 장막에 가려서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들려오 는 신음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명한 지도자들은 이 러한 은폐의 메커니즘에 늘 민감해야 한다.

3) 무위(無爲)의 즐거움?(전 5: 10-12)

전도자는 이 단락(전 5: 10-12)에서 ‘부의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한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전 5: 10). 재산이 많아지 면 스스로는 누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으로 들어가기 십상이고, 부 자는 결국 그것을 구경만 할 수밖에 없다(전 5: 11). 게다가 부자는 그 부 유함 때문에 가난한 노동자들도 쉽게 누리는 기본적인 삶의 안식(잠)도 맛 보지 못한다(전 5: 12). 여기서 전도자는 자신의 뼈저린 경험과 깊은 숙고 에서 나온 진정한 삶의 방식을 시사한다. ‘노동 없는 부’는 추구할 만한 가치 가 없다는 것이다. 전도자의 행복론은 “무위(無爲)의 즐거움”(dolce far niente) 사상과는 다르다.⁵⁴⁾ 노동과 수고는 행복의 모판이다. 이에 반해 노동 없는 부(富)는 그 소유자를 노동과 수고가 없는 불행의 자리로 내몰 수도 있다. 인생의 행복은 억압적인 노동과 수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일과 쉼을 조화롭게 조절할 때 얻어진다.

4) 부의 경비견(警備犬)(전 5: 13-17)

전도자는 이 단락에서 ‘부의 허무함’을 표현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갑작 스러운 부의 상실을 다루고 있다. 전도자는 여기서 재산과 관련하여 두 가지 를 간접적으로 권고한다. 첫째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행을 최소화하기 위 해서 재산을 적당히 분산시키고, 동시에 미리 적절히 나누어주라는 것이다

53) L. Schwienhorst-Schönberger, *Kohélet*, 325쪽.

54) L. Schwienhorst-Schönberger, *Kohélet*, 330쪽.

(전 11: 2; 참조 눅 16: 9-11; 19: 11-27; 마 25: 14-30). 둘째는 언젠가는 없어질 재산을 없어질 때까지 모으고 지키기만 하지 말고, 현재의 자신을 위해서도 지금 사용하라는 것이다(Carpe diem). 돈은 들고 돈다. 내 앞에서 잠시 멈춘 돈에는 지금 내가 사용해야 할 나의 몫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 내가 쓰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의 것이 된다. 미래 보장만을 위해서 현실의 삶을 희생 내지 포기만 하는 것은 현명한 삶의 방식이 아니다. 따라서 돈이란 적절히 배분하여 한편으로는 미래를 위해 분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을 위해 나누고, 또 다른 한편으로 현재의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5) 기쁨의 삼위일체(전 5: 18-20)

이 단락(전 5: 18-20)에서는 낙(행복)의 신학적 차원이 4단계로 전개된다. 즉 인간의 행복이 하나님과 결부되어 체계적으로 진술된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4번 언급되는 것과 일치하여 진술된다. 첫째, 하나님은 제한된 삶(생명)의 수여자이시다(전 5: 18). 둘째, 하나님은 재물과 부유함의 수여자이시다(전 5: 19a). 셋째, 하나님은 누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다(전 5: 19b). 넷째, 하나님은 인간의 즐거움 체험에서 모종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다(전 5: 20). 이 땅에 사는 동안, 즉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행복이란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서 낙을 보는 '기쁨의 삼위일체'를 누리는 삶이라 할 수 있다.

4. 요약과 결론

첫째, 전 5장 1-7절은 기존의 '종교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2절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 구절이며, 6절은 '실수(쇄가가) 제사의 남용을 금지하는 본문으로 해석된다. 7절에 나오는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은 인간에 의하여 조정될 수 없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전 5장 8-9절은 이해되지 않는 본문(crux interpretum)으로 유명하다. 이 논문은 8a절을 '전도자의 관찰'로, 8b-9절은 '체제 옹호자의 응답'으로 해석한다. 특히 9절은 당시 통치 체제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슬로건으로 간주된다. 이 단락은 특히 지도층에서 나타나는 은폐의 메커니즘을 지적

하는 구절로 '사회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분석된다.

셋째, 전 5장 10-12절은 '부의 양면성' 내지는 '부의 위험성'을 다룬다. 이 구절은 무위(無爲)의 즐거움(dolce far niente) 사상과는 다른 면을 드러낸다. '노동 없는 부'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넷째, 전 5장 13-17절은 갑작스러운 '부의 상실'에 대하여 다룬다. 13절의 "해가 되도록"(르리아토)은 '해(害)를 위하여'(불행의 대비)라는 의미와 '해(害)가 되도록'(재산의 상실)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15절은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부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전 재산의 상실'을 묘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섯째, 전 5장 18-20절은 '하나님의 선물과 응답'으로서의 '즐거움'에 대하여 다룬다. 18절은 낙(행복)이란 '재산의 소유'에 있지 않고, '재산의 누림'에 있다고 한다. 19절의 '제 뭇'이란 '재산의 취득'이 아니라, '즐거움의 체험'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20절의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계시'로 분석된다.

5. 참고 문헌

- 계제니우스,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 이 정의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7).
김 영진, 「삶의 의미를 찾아서」 (서울: 이레서원, 2008).
링그렌/쥘멀리, 「잠언/전도서(국제성서주석)」 박 영옥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머피, 「전도서(WBC 성경주석)」 김 귀탁 역, (서울: 솔로몬, 2008).
민 영진, 「전도서/아가(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기념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박 준서,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운동", 「구약논단」 제 8집(2000), 133-149쪽.
브라운, 「전도서(현대성서주석)」 채 은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6).
유 윤중, "전도서 안의 창세기", 「구약논단」 제7집(1999), 95-118쪽.
이 성훈 외, 「전도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두란노 HOW주석)」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천 사무엘, "잠언 연구의 주요 해석학적 과제들", 「구약논단」 제30집(2008), 147-166쪽.
Backhaus, F. J., *Denn Zeit und Zufall trifft sie alle: Studien zur Komposition und zum Gottesbild im Buch Qohelet* (BBB 83), (Frankfurt am Main: Anton Hain, 1993).
Bonora, A., *Il Libro di Qoèlet, Guide Spirituali all'Antico Testamento*,

- (Roma: Città Nuova, 1992).
- Buhlman, A., "The Difficulty of Thinking in Greek and Speaking in Hebrew (Qoheleth 3: 18; 4: 13-16; 5: 8)," *JSOT* 90 (2000), 101-108쪽.
- Crenshaw, J. L., *Ecclesiastes, A Commentary* (The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87).
- Fox, M. V., *Ecclesiastes* (The JPS Bible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04).
- Fredericks, D. C., "Chiasm and Parallel Structure in Qoheleth 5:9-6:9," *JBL* 108 (1989), 17-35쪽.
- Galling, K., *Der Prediger: Die Fünf Megilloth* (HAT 1/18), (Tübingen: Mohr Siebeck, 21969), 73-125쪽.
- Garrett, D. A., "Qoheleth on the Use and Abuse of Political Power," *Trinity Journal* 8 (1987), 159-177쪽.
- Gordis, R., *Koheleth-The Man and his World. A Study of Ecclesiastes*, (New York: Schocken, 19683).
- Hieke, T., "Wie hast Du's mit der Religion?: Sprechhandlungen und Wirkintentionen in Kohelet 4,17-5,6," A. Schoors(ed.), *Qohelet in the Context of Wisdom*, (Leuven-Louvain: Leuven University Press, 1998), 319-338쪽.
- Knohl, I., "Between Voice and Silence: The Relationship between Prayer and Temple Cult," *JBL* 115 (1996), 17-30쪽.
- Krüger, T., "Das Gute und die Güter: Erwägungen zu Bedeutung von טוב and טובה im Qoheletbuch," *ThZ* 53 (1997), 53-63쪽.
- Krüger, T., *Kohelet (Prediger),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Sonderband),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0).
- Kugel, J. L., "Qohelet and Money," *CBQ* 51 (1989), 32-49쪽.
- Lauha, A., *Kohelet*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 Lohfink, N., "Warum ist der Tor unfähig, böse zu handeln? (Koh 4,17)," *ZDMG.S* 5 (1983), 113-120쪽.
- Lohfink, N., "Kohelet und die Banken: Zur Übersetzung von Kohelet 5,12-16," *VT* 39 (1989), 488-495쪽.
- Lohfink, N., "Qoheleth 5:17-19: Revelation by Joy," *CBQ* 52(1990), 625-635쪽.
- Lohfink, N., *Kohelet* (Die Neue Echter Bibel), (Würzburg: Echter Verlag, 41993).
- Lohfink, N., *Qoheleth A Continental Commentary*. Translated by Sean McEvenu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3).
- Longman III, T., *The Book of Ecclesiastes* (The New International Comm-

- 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8).
- Michel, D., *Untersuchungen zur Eigenart des Buches Qohelet. Mit einem Anhang von Reinhard G. Lehmann: Bibliographie zu Qohelet* (BZAW 183), (Berlin: de Gruyter, 1989).
- Ogden, G. S., "Translation Problems in Ecclesiastes 5.13-17," *BiTr* 39 (1989), 423-428쪽.
- Otto, R., *The Idea of the Hol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 Rostovtzeff, M., *Gesellschafts- und Wirtschaftsgeschichte der hellenistischen Welt*, Band 1,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55).
- Rüdiger, L., "Denn es ist kein Mensch so gerecht auf Erden, daß er nur Gutes tue ...': Recht und Gerechtigkeit aus der Sicht des Predigers Salomo," *ZThK* 94 (1997), 263-287쪽.
- Schwienhorst-Schönberger, L., *Kohelet* (Herders Theologischer Kommentar zum Alten Testament), (Freiburg: Verlag Herder, 2004).
- Seow, C.-L., *Ecclesiaste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18C), (New York: Doubleday, 1997).
- Tita, H., "Ist die thematische Einheit Koh 4,17-5,6 eine Anspielung auf die Salomoerzählung? Aporien der religionskritischen Interpretation," *BN* 85 (1996), 87-102쪽.
- Vonach, A., *Nähere Dich um zu hören: Gottesvorstellungen und Glaubensvermittlung im Koheletbuch* (BBB 125), (Berlin/Bodenheim: Philo, 1999).
- Whybray, R. N., *Ecclesiastes*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89).

검색어

하나님 경외
 침묵의 성소
 실수(쇄가가) 제사
 은폐의 메커니즘
 진정한 낙(행복)
 종교와 돈

투고일: 2010년 4월 1일
 심사일: 2010년 5월 1일
 게재확정일: 2010년 6월 3일

The Theological Reading of Ecclesiastes 5: Exegesis and Message

Jun-Hee Cha, Dr. theol.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Hansei University

It is not new that there is a gap between the theological education at school or seminary and the teaching in church. Now, biblical scholars at seminary should avoid pedantic studies of the Scripture. Also, pastors in church, who close their mind to the teachings from theological schools have to stay away from subjective and arbitrary misinterpretation of the Scripture. Mutual respect and understanding between theology(academic field) and the teaching of pious life(church) are the most urgent tasks to achieve.

This essay will try to find a clue of this problem in the theological exegesis of the Scripture. Theological exegesis is a hermeneutic attempt not only to investigate and reveal the original meaning of the text(the final editor) at the historical time, but also to draw messages for today, focusing on the final form of the text rather than its formation process. This essay will interpret Ecclesiastes Chapter 5 which includes particularly incomprehensible concepts and paragraphs. Furthermore, this essay will derive a message that can be used for preaching in church.

The contents of Ecc 5: 1-7 is about 'the criticism of the existing religious reality.' Verse 2 stresses on the absolute sovereignty of God rather than indifference of God. Verse 6 is interpreted as the prohibition on the abuse of 'mistake (Schegaga) of worship.' The word, 'fear of God,' in verse 7 acknowledges that God is not controlled by human beings.

Ecc 5:8-9 is notorious for its barely understandable text (*crux interpretum*). The essay interprets verse 8a as 'Qoheleth's observation,' and verses 8b-9 as 'a response of a supporter of the established order.' Particularly, verse 9 is regarded as a slogan for supporting legitimacy of the government structure at that time. This paragraph, especially, is analyzed as the criticism of social reality, pointing to the mechanism of concealment that can be found in the leadership.

Ecc 5:10-12 deals with 'the double-sided wealth' or 'dangerousness of wealth.' These verses show a concept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the joy of idleness' (*dolce far niente*). This means that 'wealth without labor' is no value to seek.

Ecc 5:13-17 concerns 'the sudden loss of wealth.' The word, "to their hurt," (*leraato*) in verse 13 is interpreted as 'for their hurt' (the preparation for unhappiness) and "to their hurt" (the loss of wealth). Also, as many scholars insist, verse 15 is analyzed as 'the loss of one's whole fortune' rather than 'the sudden death of the rich.'

Ecc 5:18-20 deals with 'the present of God and enjoyment' in response. "Enjoyment" (happiness) in verse 18 is not in 'possession of property,' but in 'enjoying property.' "Their lot" in verse 19 does not mean 'acquisition of property,' rather 'the experience of enjoyment.' Also, 'God's response' in verse 20 is regarded as 'God's revelation.' The four times mentioning of God's name in this paragraph could reveal the characters of God: First, God is the giver of limited life (Ecc 5:18). Second, God is the granter of property and wealth (Ecc 5:19a). Third, God is the one who can enable enjoyment (Ecc 5:19b). God is the one who works in certain ways for the sake of human beings' experience of enjoyment (Ecc 5:20).

Keywords

the fear of God • sanctuary of silence
sacrifice of error (*Schegaga*) • mechanism of concealment
religion and money • genuine well-being